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

-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및 한국종교교육학회 학술지를 중심으로 -

손 원 영 · 김 지 혜

(서울기독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를 대변하는 두 학술단체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와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곧 《기독교교육정보》,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종교교육학은 개별 연구자에 의한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종교교육학은 하나의 '실천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론과 실천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의 상황 속에 위치해 있다. 셋째, 한국의 종교교육학 연구자들은 비교적 높은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다. 넷째, 한국종교교육학 연구는 남성과 여성 연구자들 사이에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종교교육학의 국제화수준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나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 교육현장과 관련된 한국종교교육학 연구는 기독교의 경우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는 학교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일곱째, 후기현대적 주제에 대한 한국종교교육학계의 연구는 매우 빈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여덟째, 한국의 종교교육학 연구자들은 교육의 구성요소 중 주로 교육목적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째, 한국의 종교교육학은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주로 인문학적인 연구방법, 곧 문헌연구방법에 크게 의존해 있는 특성이 있다.

핵심 주제어: 한국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정보, JCEIT, 종교교육학연구,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I. 머리말

최근 10여 년 전부터 한국 종교교육학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종교교육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들(학회)이 이시기에 주로 조직되거나, 학술지 발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학문공동체인 학회가 체계화되었다는 의미는 곧 연구 활동이 정기적인 '학술지' 발행을 통해 진척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때, 한국 종교교육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는 최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한국에서 전국규모의 학회를 조직하여 종교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는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이다. 이 학회는 개신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961년 조직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 역사만으로 볼 때, 이 학회가 종교교육학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회의 학술지인 《기독교교육논총》은 1996년 처음으로 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학술활동은 이제 겨우 10년이 좀 넘는 셈이다. 둘째는 2000년에 설립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이다. 이 학회는 정보화와 국제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매우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기독교교육정보》와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두 전문학술지의 발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한국종교교육학회이다. 이 학회는 특정 종교를 초월한 종교교육학 관련 학술단체로서 비록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학을 표방하면서 1995년 설립되었으나, 전문학술지인 《종교교육학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종교 전체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종교교육학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연구의 체계성이 정기적인 학술지 발행으로 표현된다면, 한국 종교교육학계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학술지가 처음 발행된 19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크게는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종교교육학계는 학회 및 학술지의 발행을 통해 매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적으로 지향하기 위해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현 주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 점에서 연구자는 한국 종교교육학 전문학술지들의 분석을 통해 한국 종교교육학계가 어떻게 연구하여왔고, 그 주요한 학문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 종교교육학계의 대표적 두 학회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학술지로 제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학술지의 기본적 이해 및 연구방법

1. 학술지의 기본적 이해

먼저 한국종교교육학회는 불교를 위시하여 여러 종교들의 "종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과 실제문제를 연구하여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6월 24일에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원은 2005년 현재 약 280명 정도이고, 년 2회 정도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년 2회로 학술지 《종교교육학연구》를 발행하며, 현재까지 학술지는 20권 발행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불교학을 중심으로 학회가 처음 설립되었으나, 종교다원적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이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의 편집위원회는 각 종교별로 책임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2005년 현재 김용표(위원장, 동국대), 김귀성(원광대), 김재영(서강대), 박일영(가톨릭대), 박철홍(영남대), 오석원(성균관대), 윤원철(서울대), 이찬수(강남대), 이희재(광주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심사는 각 논문당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처리된 논문심사가 의뢰되고, 주제의 독창성, 필요한 관련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논리전개의 적절성, 그리고 학계의 기여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가 허락된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해 논문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모두 좋은 논문으로써 종교교육학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는 정보화 및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기독교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면서, 기독교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를 지향하고자 2000년 3월 18일 창립되었다. 이 학회는 ①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영문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한국 종교교육학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② 이 학회는 종교교육학과 그와 관련된 인접학문들 사이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종합학문적 정보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학문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③ 디지털정보시대로부터 도전 받는 한국 종교교육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기반의 종교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현재 약3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문학술지 《기독교교육정보》가 2005년 현재 까지 년2회로 제11집이 발간되었고, 2005년부터는 년3회로 증간되고 있다. 그리고 영문학술지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이하, JCEIT)는 년 2회로 2005년 현재 7집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국문학술지 《기독교교육정보》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하부조직인 5개 영역분과(기독교신학 및 철학분과, 기독교교육과정분과, 기독교교육체제분과, 기독교교육공학분과, 기독교교육실천분과)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문학술지 JCEIT는 외국인 편집인 1인을 포함하여 각 분과에서 추천된 7인으로 구성 된다. 2005년 현재 국문학술지 편집위원은 권순택(위원장, 그리스도대), 이숙중(강남대), 손원영(서울기독대), 오춘희(아시아연합신대), 박문옥(한세대), 윤화석(천안대), 김명숙(이화여대)이다. 그리고 영문학술지 편집위원은 한미라(위원장, 호서대), 김희자(총신대), 이규민(호남신대), 김현숙(연세대), 임영택(협성대), 한철희(나사렛대), John Bondy(나사렛대)이다. 논문심사 절차와 게재 결정 여부는 앞서 설명한 한국종교교육학회와 대동소이하다. 특히 게재율이 50% 미만으로 규정상 정해져 있어 매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엄선된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2. 학술지 선정 준거와 연구방법

먼저 본 연구는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특성을 알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두 학회의 전문학술지 《기독교교육정보》와 JCEIT,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서술될 수 있다. 첫째, 세 학술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교육학 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에 의해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이미 정부로부터 학술지 평가과정을 통해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기독교교육논총》은 아직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세 학술지 모두 에큐메니칼(ecumenical)¹⁾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1) 본래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신학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교회일치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에큐메니칼 운동은 단순히 기독교 내의 교회일치운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웃종교와의 대화라는 차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에큐메니칼의 의미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용하

상호유사점이 큼으로 선정되었다. 즉 《기독교교육정보》와 JCEIT는 비록 개신교 중심의 종교교육학 학술지이지만, 한국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소위 교회연합적 차원에 기여하는 학술지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학연구》는 어느 특정한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 종교 간의(interfaith) 학문적 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여하는 학술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학회의 학술지는 에큐메니칼 지향의 학술지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세 학술지 모두 편집위원구성이 복수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될 논문이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교교육학계의 학술지는 위에서 언급한 두 학회가 발행하는 세 종류의 학술지 밖에 없음으로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주제에 따라 계량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본래 비교방법의 목적은 비교되는 두 대상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토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어떤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말해 비교방법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하게 하는 자기 성찰적 방법이 된다. 이런 점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모든 전제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울 것, 둘째, 규범적 판단으로부터 가능한 한 벗어날 것, 셋째, 대상과 공감을 유지할 것, 넷째, 엄밀한 학이라는 이상을 지향할 것 등이다.²⁾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방법의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학술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 볼 때 종교교육학 및 교육학 관련 분야에서 그와 관련된 학술지에 관한 비교 및 평가의 논문들은 최근 여러 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논문들은 《영국의 종교교육》(*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직업발달》(*Career Development Quarterly*), 그리고 《성인교육》(*Adult Education Quarterly;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등과 같은 전문학술지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이다.³⁾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종교교육학 분야에서

고자 한다.

2) 김호기 · 엄경순 · 최혜실, 《지식의 최전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새롭고 더 창조적인 발상들》(서울: 한길사, 2002).

3) L. M. English, M. O. D'Souza, and L. Chartrand, A 10 Year Retrospective of the BJRE: An Analysis of Contents and Contributors,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4(2003), 308-319; idem, Analysis of Contents, Contribu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Mapping Publication Routes in the Journal, *Religious Education* 100:1 (2005; The 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 US), 6-19; W. C.

이루어진 학술지 비교연구는 잉글리쉬(English et al.)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의 종교교육학 연구의 동향을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교육학 분야의 학술지인 *Religious Education*과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을 적절히 비교 분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두 학술지를 비교분석하였는데, 학술지를 비교분석하려는 본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비교분석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곧 ① 협동연구, ② 저자의 국제성, ③ 참여자 기관의 다양성, ④ 지역적 분포도, ⑤ 여성의 참여비율(제1저자), ⑥ 직위에 따른 연구 참여 여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강사, 기타 겸임교수 등; 목회자, 교사, 대학원생 등), ⑦ 독자(educational audience)에 대한 고려여부, ⑧ 연구방법 유형(문헌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 ⑨ 저자의 종교적 입장, 그리고 ⑩ 연구주제(교육이론, 모델/방법, 도덕, 가치교육, 정책 및 행정, 영성-문화적-사회적 이슈, 경전) 등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은 잉글리쉬의 연구준

Buboltz and M. L. Savickas, A 20-Year Retrospective of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1994), 367-381; A. Blunt and J. Lee, The Contribution of Graduate Student Research to *Adult Education/Adult Education Quarterly*, 1969-1988, *Adult Education Quarterly* 44:3(1994), 125-144; E. R. Hayes, The Impact of Feminism on Adult Education Publications: An Analysis of British and American Jour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1:2(1992), 125-138; E. R. Hayes and L. Smith, Women in Adult Education: An Analysis of Perspective in Major Journals,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44:4(1994), 201-221; M. Thompson & F. M. Schield, Neither polemical nor visionary: Language, professionaliz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journals of adult education, 1929-1960, *Adult Education Quarterly* 46:3 (1996), 123-141.

- 4) English, D'Souza, and Chartr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Patterns in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100: 2(2005), 193-210. 국내의 학술지 비교연구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배순자, <국내 학술연구자들의 국내 학술지 의존도에 대한 계열간 비교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1998), 127-142; 김성용·민태선·허철호·안은영, <과학재단 연구 인력 DB 분석을 통한 지구과학과 타 이학계 분야간의 최근 5년간(FY1999-2003) 연구 실적 비교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26:3(2005), 232-239 등이 주목을 끌고 있고, 종교교육학분야의 학술지에 대한 비교분석적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

- 5) English et 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Patterns in

거를 한국의 종교교육적 상황과 최근의 종교교육학 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재구성한 뒤 본 논문에서 분석을 위한 연구주제의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 ① 협동연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협동연구)
- ② 종교교육학이 얼마나 실천(praxis) 지향적인가? (이론가와 실천가의 균형성)
- ③ 종교적 관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교파간/종교간 종교적 관용)
- ④ 여성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여성참여도)
- ⑤ 국제화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국제성)
- ⑥ 교육현장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교육현장)
- ⑦ 후기현대적 주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후기현대성)⁶⁾
- ⑧ 종교교육의 구성요소 중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교육의 구성요소)⁷⁾
- ⑨ 어떠한 연구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가? (연구방법)⁸⁾

그리고 본 연구는 두 학회의 세 학술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대상의 범위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발행된 학술지, 곧 《기독교교육정보》 제1집-제9집(논문 총113편), JCEIT vol. 1-6(논문 총72편),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 제10권-19권(논문 총112편)까지 총 29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왜냐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p. 197.

- 6) 여기서 후기현대적 주제는 하지슨의 이론에 근거하여 다섯가지를 선정하였고, 연구자는 여기서 디지털의 이슈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eter C. Hodgson, *Winds of the Spirit* (1994), 《기독교구성신학》, 손원영외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0), pp. 99-107 참조.
- 7) 교육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Harold William Burgess,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6)에 따르면, 모두 여섯가지이다. 즉 교육목적(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신학), 교육과정(교수-학습과정, 프로그램), 교사(리더쉽), 학습자(발달이론), 교육환경(교육행정, 체제/교회학교, 학교교육 등), 교육평가이다. 여기에 연구자는 종교적 의례(영성, 예배, 수련)를 추가하고자 한다.
- 8) 여기서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인문학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헌연구방법과 함께,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 곧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바니스(L. Philip Barnes)가 언급한 것처럼, 문헌연구방법도 하나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류의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질적 연구방법이란 주로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통한 연구를 의미한다. L. Philip Barnes, *Comparative Analysis and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A Response to Professors English, D'Souza, and Dr. Chartrand*, *Religious Education* 100:2 (2005), 211-222 참조.

하면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의 학술지가 2000년부터 발행되었기 때문에, 두 학회 학술지를 같은 시기로 제한하여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술지 안에 게재된 권두언, 축사, 그리고 이중으로 게재된 번역논문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논문의 편수는 다음과 같다.

표1. 연구대상 논문

	논문수(편/집)	소계	합계
기독교교육정보	10(1), 12(2), 15(3), 13(4), 11(5) 11(6), 13(7), 11(8), 17(9)	113편	
JCEIT	10(1), 11(2), 10(3), 10(4), 14(5), 17(6) 14(10), 5(11), 14(12), 13(13), 9(14)	72편	
종교교육학연구	15(15), 12(16), 11(17), 9(18), 10(19)	112편	297편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연구범위가 5년으로써 매우 제한된 연구라는 점이다.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보편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두 학회는 그 나름의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한국종교교육학회는 다원종교 사회에서 요청되는 종교 간의(interfaith) 관계를 통한 종교교육에 관심을 둔 반면,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는 기독교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양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근거함으로써, 각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III. 학술지분석

1. 협동연구 현황

최근의 학문적 동향은 연구방법에 있어 협동연구(collaborative research)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종교교육학이 독립된 학문이라기보다는 종합학문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닌 학문이라고 할 때, 협동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⁹⁾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교육정보》에 게재된 논문 중

공동저자에 의한 협동연구는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JCEIT는 2.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는 2.57%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두 학회 모두 협동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종교교육학 학술지인 *Religious Education* (이하 RE)의 협동연구논문 비율 7.1%, 영국 종교교육학 학술지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이하 BJRE)의 17.3%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¹⁰⁾ 따라서 앞으로 협동연구가 보다 더 장려될 필요가 있다.

표2. 협동연구 현황

	논문수(집/편)	소계	비율(%)	전체비율(%)
기독교교육정보	1(5), 1(8), 1(9)	3(113)	2.65	
JCEIT	2(6)	2(72)	2.78	
종교교육학연구	1(10), 1(17), 1(19)	3(112)	2.57	
합계		8(297)		2.69

2. 이론과 실천의 균형성

종교교육학은 학문의 성격상 실천(praxis) 지향적 학문이다. 따라서 이론가와 현장의 실천가는 결코 주종관계가 아니며,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상호비판적인 협력관계에 서 있는 대화자요 조력자이다.¹¹⁾ 따라서 종교교육학 연구는 이 양자 사이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9) 최근 종교교육학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협동연구는 오스머와 슈바이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과 독일의 종교교육을 각각 비교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Richard R. Osmer & Friedrich Schweitzer, *Religious Education betwee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New Perspectives o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참조.

10) English et 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Patterns in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pp. 198.

11) 이론 연구와 현장 연구의 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의 소속을 분석하였다. 학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구자의 소속이 대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었을 경우 이론가로 분류하였고, 교육현장(종교기관 및 초·중등학교 포함)에 종사할 경우 실천가로 분류하였다. 종교교육학의 실천신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제1장 참조; '프락시스'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참조.

한국 종교교육학의 현주소는 프락시스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론중심적인 형태, 곧 전통적인 연구형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결과(표3)에서 드러나듯이, 《기독교교육정보》의 경우, 전체 논문 113편 중 12편(10.61%)만이 현장의 교육실천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JCEIT의 경우는 72편의 논문 중 오직 한편(7.03%)만이 현장의 실천가에 의한 논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학연구》 역시 전체 112편의 논문 중 4편(3.57%)만이 실천가에 의해 작성된 논문이다. 두 학회 전체로 볼 때, 297편 중 17편(5.72%)만이 현장의 교육실천가에 의한 논문이었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균형을 지향하는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표3. 교육실천가의 논문 수

	논문수(집/권)	소계(전체논문)	비율(%)	전체비율
기독교교육정보	1(1), 2(3), 2(4), 1(5), 3(6), 1(7), 2(8)	12(113)	10.61	
JCEIT	1(6)	1(72)	7.03	
종교교육학연구	2(12), 1(13), 1(14)	4(112)	3.57	
합계		17(297)		5.72

3. 종교적 관용의 정도¹²⁾

종교적 관용(religious tolerance)에 관한 문제는 한 종교인의 “신앙성숙”¹³⁾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종교적 관용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얻어지는 하나의 종교적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 내의 교회일치운동이나 종교간의 대화의 문제는 종교적 성숙과 관련된 문제로서, 종교교육학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일치운동, 혹은 종교간의 대화운동은 두 학회가 모두

12) 종교적 관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 저자의 소속 교파 혹은 소속 종교를 살펴봐왔다. 그러나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여럿 있었음을 밝혀둔다. 특히 《종교교육학연구》는 저자의 종교적 배경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논문이 어떠한 종교와 관계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속종교를 분류하였다.

13) 신앙발달이론에 따르면, 적어도 종교 간의 대화와 교회일치를 지향하기 위한 신앙발달단계는 6단계 중 5단계 곧 “결합적 신앙”의 단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chap. 20 참조.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결과(표4, 표5)에서 보여주듯이, 《기독교교육정보》에 투고된 저자들의 종교 현황은 장로교가 36.21%, 감리교 31.90%, 성결교회 7.76%, 순복음교회 6.90%, 나사렛교회 5.17%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JCEIT의 경우, 장로교 32.00%, 감리교 17.33%, 나사렛교회 16.00%, 성결교 12.00%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내의 학술활동은 교파의 차이보다는 교회일치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저자의 종교적 배경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독교교육정보》에는 투고자의 종교적 배경이 모두 개신교이었지만, JCEIT의 경우는 가톨릭교회가 2.67%(2인)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도 개신교의 벽을 넘어 가톨릭교회 및 다른 종교와도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종교교육학연구》의 경우는 더욱 고무적이다.(표6) 전체 116명의 저자 중 불교23명(19.82%), 개신교를 배경으로 한 저자가 13명(11.20%), 가톨릭교회11명(9.48%), 유교10명(8.62%), 천도교9명(7.76%), 원불교8명(6.90%), 대순진리회6명(5.17%)을 차지하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종교 대화적 태도를 가진 저자가 20명(17.24%)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종교교육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세 학술지 모두는 다양한 교파적 혹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의 논문을 비교적 균형있게 게재함으로써 종교적 관용의 정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4. 《기독교교육정보》 논문저자 종교적 배경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그리스도 의교회	복음 교회	성공회	불명확	합계
논문수 (편)	42	37	9	8	6	6	3	1	4	116
비율 (%)	36.21	31.90	7.76	6.90	5.17	5.17	2.59	0.86	3.45	공동저 자포함

표5. JCEIT 논문저자 종교적 배경

	장로회	감리교	나사렛	성결교	가톨릭	복음교회	순복음	불명확	합계
논문수 (편)	24	13	12	9	2	3	1	11	75
비율(%)	32.00	17.33	16.00	12.00	2.67	4.00	1.33	14.67	공동저자 포함

표6. 《종교교육학연구》 논문저자 종교적 배경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순진 리회	종교대화	불확실	합계
논문수 (편)	23	13	11	10	9	8	6	20	15	116
비율 (%)	19.82	11.20	9.48	8.62	7.76	6.90	5.17	17.24	12.93	공동저 자포함

4. 여성참여도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 할 만큼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은 이제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종교교육학계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결과(표7)에 나타나듯이, 《기독교교육정보》의 경우, 113편의 논문 중 여성 연구자에 의한 논문은 42편으로 37.1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JCEIT의 경우는 72편중 26편을 게재하여 36.11%를 차지하였다.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의 전체 투고자로 계산할 볼 때는 36.76%가 여성으로 드러났다. 한편, 《종교교육학연구》의 경우는 전체논문 112편 중 25편이 여성저자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써, 22.3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성평등지향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보다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약간 낮은 것은 한국종교교육학회가 한국의 남성중심적인 전통종교를 포함하는 학회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 RE의 경우 여성연구자(제1저자)가 전체의 40.9%를 차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한국 종교교육학계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참여가 격려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국 BJRE와 비교할 때, 영국의 경우는 여성참여비율이 24.4%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보다 현저히 여성참여율이 낮다는 점이다.¹⁴⁾ 따라서 적어도 현재 한국 종교

교육학계의 여성참여도는 어느 정도 긍정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표7. 여성저자 수

	논문수(집/편)	소계(편)	비율 (%)	전체합계 (%)
기독교교육정보	5(1), 6(2), 7(3), 5(4), 3(5), 4(6) 4(7), 3(8), 5(9)	42(113)	37.17	
JCEIT	4(1), 4(2), 2(3), 4(4), 4(5), 8(6)	26(72)	36.11	
종교교육학연구	5(10), 1(11), 4(12), 2(13), 2(14) 3(15), 2(16), 1(17), 4(18), 1(19)	25(112)	22.32	
합계		93(297)		31.31%

5. 국제화

지금 한국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제화(globalization)를 지향하고 있다. 학문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국의 이론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교육이론과 경험을 외국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이것은 학술연구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격려될 필요가 있는데, 종교교육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 현 상황은 어떠한가? 결과(표8)에서 드러났듯이,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는 적극적으로 한국종교교육학의 이론과 실천의 경험들을 국제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문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이에 부응하고 있는데, 주목을 끄는 것은 전체 영문원고 투고자 72명 중 28명 곧 38.89%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화의 정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국문학회지에 투고한 외국인이 전혀 없는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한편, 《종교교육학연구》의 경우는 112편의 논문 중 단 2편만이 외국인에 의한 논문(1.79%)임으로 그 실적에 있어서 매우 저조하다. 특히 한국종교교육학회의 학술지는 그 성격상 한국의 주요종교(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종교교육을 대변하는 학술지라고 할 때, 그 국제화의 정도는 한국종교교육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향후 꼭 풀어야할 과제로 사료된다.

14) English et al., Comparative Analysis of *BJRE* and *RE*, p. 203.

표8. 외국인 저자

	논문수(집/권)	소계(편)	비율(%)	전체비율(%)
기독교교육정보	0	0(113)	0	
JCEIT	5(1), 3(2), 5(3), 4(4)	28(72)	38.89	
	5(5), 6(6)			
종교교육학연구	2(19)	2(112)	1.79	
합계		30(297)		10.10

6. 종교교육현장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의 현장은 각 종교마다 다양할 수 있으나 적어도 다섯 가지가 고려되곤 한다. 그것은 곧 각 종교의 예배당(교회, 성당, 사찰, 사원 등)을 비롯하여,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디지털공간이다. 이 중에 앞의 넷은 전통적인 교육현장(체제)으로 중시되었던 곳이고, 마지막 후자는 최근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부상한 교육체제라 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최근 연구자들은 어떠한 교육현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학회는 특히 어느 현장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결과에 의하면, 많은 논문들이 “교회교육과 디지털” 등과 같은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어느 하나의 교육현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두 개 이상의 현장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교육이론 전반에 관한 논문이 많은 관계로 특정한 현장을 강조하지 않는 논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교육정보》의 경우(표9), 34편(30.09%), JCEIT의 경우(표10), 27편(37.50%),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의 경우(표11)는 거의 절반이 넘는 61편(54.46%)이 특정한 교육현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강조도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정보》와 JCEIT의 경우는 예배당(교회학교 포함)이 각각 30.97%와 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교육현장으로 중시되었고, 이어서 디지털공간이 중요한 교육현장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종교교육학연구》는 예배당이나 디지털공간보다는 학교(17.86%)와 사회(16.07%), 그리고 가정(10.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와 가정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종교교육학연구》에는 특정한 교육공간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종교적 수련(54.46%)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15)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제4장 참조.

다. 이것은 향후 종교적 수련이 종교교육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9. 《기독교교육정보》 교육현장 분류표

	예배당 (교회학교)	학교	사회	가정	디지털	기타(현장 강조없음)	합계
논문수	2(1) 2(2)	0(1) 3(2)	0(1) 1(2)	0(1) 1(2)	5(1) 2(2)	2(1) 4(2)	
(집/권)	7(3) 5(4)	1(3) 3(4)	1(3) 1(4)	1(3) 0(4)	3(3) 0(4)	2(3) 4(4)	
	3(5) 2(6)	1(5) 0(6)	2(5) 0(6)	0(5) 0(6)	3(5) 4(6)	2(5) 5(6)	
	4(7) 6(8)	2(7) 1(8)	1(7) 0(8)	0(7) 1(8)	1(7) 2(8)	5(7) 1(8)	
	4(9)	3(9)	1(9)	0(9)	0(9)	9(9)	
소계(편)	35	14	7	3	20	34	113
비율(%)	30.97	12.39	6.19	2.65	17.79	30.09	100

표10. JCEIT 교육현장 분류표

	예배당 (교회학교)	학교	사회	가정	디지털	기타	합계
논문수	1(1) 2(2)	2(1) 4(2)	0(1) 0(2)	0(1) 0(2)	0(1) 0(2)	7(1) 5(2)	
(vol.)	3(3) 4(4)	1(3) 0(4)	3(3) 2(4)	0(3) 0(4)	0(3) 2(4)	3(3) 2(4)	
	4(5) 4(6)	1(5) 1(6)	1(5) 2(6)	2(5) 1(6)	2(5) 3(6)	4(5) 6(6)	
소계(편)	18	9	8	3	7	27	27
합계(%)	25.00	12.50	11.11	4.17	9.72	37.50	100

표11. 《종교교육학연구》 교육현장 분류표

	예배당	학교	사회	가정	디지털	기타 (특정현장없음 /개인적 수행)	합계
논문수		9(12)	1(10)			3(10) 5(11)	
(권)		7(13)	3(12)	9(10)		3(12) 6(13)	
	0	1(17)	8(15)	2(14)	1(17)	7(14) 7(15)	
		1(18)	4(17)	1(17)		12(16) 4(17)	
		2(19)	2(18)			6(18) 8(19)	
소계(편)	0	20	18	12	1	61	112
비율(%)	0	17.86	16.07	10.71	0.89	54.46	100

7. 후기현대적 주제의 반영

기독교신학자 하지슨(Peter C. Hodgson)은 21세기 포스트모던적(post-modern) 상황에서 현대신학은 적어도 다섯 가지 위기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¹⁶⁾ 그것은 인지적 위기, 성적 위기, 종교적 위기, 정치경제적 위기, 생태적 위기가 그것이다. 여기서 인지적 위기란 이성 중심에 뿌리를 둔 기술적 합리성 속에서 발견된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일찍이 주장했듯이 이성은 미신을 쫓아내고 모든 인간의 습관을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계몽주의 이래 끊임없이 기술적, 과학적, 산술적 측면을 지향해 왔다. 그런데 이런 합리성이 우리 사회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생산성의 기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반대로 가장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이 이성중심주의의 해체현상에서 이 시대의 인지적 위기를 파악하게 된다. 둘째는 정치경제적 위기이다. 세계화 혹은 국제화의 진전으로 인해, 세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등장하지만, 전쟁과 테러와 같은 매우 부정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최근 911테러와 이라크전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위기는 곧 세계평화의 문제요, 전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생태계의 위기이다. 각종 오염과 오존층파괴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복제의 문제 등 다양한 생태계의 위기가 인류 앞에 도래한 것이다. 넷째는 성적인 위기이다. 성의 혁명(sexual reformation)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전통 속에 숨어 있던 성적 억압의 문제를 폭로시켰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gender)의 위기는 남녀의 관계와 사회적 권력의 분배방식을 결정했던 기존의 가부장사회에 대한 강한 도전이 되고 있다. 다섯째는 종교적 위기이다. 세계가 좁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종교다원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온 지구의 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종교적 갈등 현상은 911이후 더욱 첨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꼭 풀어야 할 인류의 숙제가 되고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에 연구자는 디지털의 위기를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한다.¹⁷⁾ 앞의 주제와 함께 디지털의 주제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떼어 놓고 살 수 없는 가장 근본

16) Peter C. Hodgson, *Winds of the Spirit*(1994), 《기독교구성신학》, 손원영의 역(서울: 은성출판사, 2000), pp. 99-107; 여기서 하지슨의 후기현대적 주제는 한국의 학회지 비교분석을 위한 임의적 선택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 예컨대 이산가족, 통일, 화해, 복지, 지역화, 세대간의 갈등 등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17)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제III부 참조.

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의 여섯가지 주제는 모든 현대인들이 씨름해야 할 연구주제들이며, 동시에 종교교육학 연구자들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여섯 가지의 위기 속에서 한국 종교교육학자들이 어떻게 이 위기에 응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표12, 표13, 표14)에 따르면, 《기독교교육정보》는 위의 여섯 가지 주제 중 디지털의 주제에 대하여 매우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32.74%) 그리고 지식의 변화에 따른 영성의 주제도 비교적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15.92%) 그리고 JCEIT 역시 디지털(15.28%)과 지식의 변화 및 영성(16.67%)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째는 디지털의 주제와 지식의 변화에 따른 영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으나, 그 밖의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적 위기나 종교적 대화에 대한 주제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 종교교육학자들이 앞으로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한국 기독교교육정보학회의 두 학술지 모두 후기현대적 주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정도가 거의 절반(《기독교교육정보》 41.60%, JCEIT 48.61%)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 종교교육이 시대의 정신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청된다.

한편, 《종교교육학연구》는 후기현대적 위기와 관련된 주제 중 “종교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12.5%)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밖의 주제 곧 성적 위기와 디지털혁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으며, 심지어 같은 맥락에서 후기현대적 위기와 관련된 어느 주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경우가 전체의 2/3정도가 되는 70.53%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관심은 자칫 학습자들로 하여금 종교교육이란 현재의 삶과 관련이 없는, 그래서 단지 고리타분한 과거의 문제에만 매어 있는 교육으로 오해될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현대적 주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표12. 《기독교교육정보》 후기현대적 주제 논문 수

	지식의 변화(영성)	성적 변화	종교간의 대화	정치적 변화	생태 환경	디지털 사회	관련없음	합계
논문수	3(2) 3(3)			1(1)		5(1) 2(2)	3(1) 4(2)	
(집)	3(4) 1(5)	1(2)	1(9)	1(6)	1(1)	9(3) 5(4)	3(3) 4(4)	
	1(6) 5(7)	1(9)		1(7)	2(2)	6(5) 5(6)	4(5) 4(6)	
	2(8)			1(9)	1(4)	2(7) 3(8)	5(7) 6(8)	
소계							14(9)	
(편)	18	2	1	4	4	37	47	113
합계	15.92	1.77	0.88	3.54	3.54	32.74	41.60	100
(%)								

표13. JCEIT 후기현대적 주제 논문 수

	지식의 변화(영성)	성적 변화	종교간의 대화	정치적 변화	생태환경	디지털사회	관련없음	합계
논문수	2(1) 3(2)	1(1)		1(1)	2(1)			
(vol.)	2(3) 1(4)	1(3)	1(4)	1(2)	2(3)	2(2) 1(3)	4(1) 5(2)	
	1(5) 3(6)		1(5)	1(3)	1(5)	2(4) 2(5)	3(3) 6(4)	
				1(6)	1(6)	4(6)	9(5) 8(6)	
소계(편)	12	2	2	4	5	11	35	72
비율(%)	16.67	2.78	2.78	5.56	6.94	15.28	48.61	100

표14. 《종교교육학연구》 후기현대적 주제 논문 수

	지식의 변화(영성)	성적 변화	종교간의 대화	정치적 변화	생태환경	디지털 사회	관련없음	합계
논문수			1(11)				13(10)	
(권)			3(13)				3(11)	
	1(11)		1(14)				13(12)	
	1(14)		4(15)	7(15)	1(10)		10(13)	
	1(15)	0	1(16)	1(17)	1(12)	1(17)	7(14) 3(15)	
	1(17)		1(17)	2(18)			11(16)	
	2(19)		1(18)				7(17)	
			2(19)				6(18) 6(19)	

	지식의 변화(영성)	성적 변화	종교간의 대화	정치적 변화	생태환경	디지털 사회	관련없음	합계
소계 (편)	6	0	14	10	2	1	79	112
비율 (%)	5.36	0	12.5	8.92	1.79	0.89	70.53	100

8. 교육의 구성요소

교육연구란 하나의 과학적 작업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교육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종교교육학 연구자들은 주로 어느 구성요소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종교교육학의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학자의 의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구성요소는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그것은 ①교육의 목적/목표, ②교사, ③ 학습자, ④교육과정, ⑤ 교육환경/체제, 그리고 ⑥ 교육평가이다. 결국 교육이란 이상의 여섯가지 구성요소들이 절묘하게 조합되어 이루어지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여기서 교육목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사, 교육신학 및 교육철학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론도 이 구성요소와 연관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성요소로서 교사는 최근 리더십(leadership)과 연관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이론을 비롯하여 학습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및 심리발달이론들이 학습자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진다. 그리고 교육과정(curriculum)은 가르쳐야 할 내용과 주로 관계를 맺으면서, 프로그램개발과 연관하여 연구된다. 그리고 교육체제 및 환경은 교육현장과 연관되는 것으로 교육행정학 및 학교체제 등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평가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학 분야에서는 이 여섯가지 구성요소 이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곤 하는데, 그것은 ⑦ 종교적 의례(ritual)에 관한 것이다.¹⁹⁾ 예컨대 영성훈련이나 예배, 혹은 종교적 수련 등은 일반 교육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바로 앞에서 서술한 일곱 가지에 대한 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종교교육학은 어느 구성요소 곧 어느 연구 분야에 보다 큰 관

18) Harold Burgess,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1976) chap. 1 참조.

19)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제 3장 참조.

심을 갖고 연구되고 있는가 성찰하는 일은 향후 종교교육학 전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결과(표15, 표16, 표17)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정보》는 종교교육의 구성요소 중, 교육목적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제일 활발하고(39.82%), 다음으로 는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였다.(23.01%)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거의 10% 미만을 차지함으로써, 매우 연구실적이 빈약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그리고 종교적 의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JCEIT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목적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았으며(44.44%), 그 뒤를 이어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25%) 이에 비해 교육평가와 교육과정에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종교교육학연구》는 앞의 경우보다 더 극단적이어서, 교육의 구성요소 중 거의 대부분을 교육목적 및 연구방법론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78.57%)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불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교육철학이나 신학 혹은 종교학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각 구성요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표15. 《기독교교육정보》와 교육의 구성요소

	교육목적 연구방법론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평가	의례	합계
논문수 (집)	4(1) 5(2)		2(1)	1(2)	4(1) 4(2)			
	5(3) 7(4)	1(2) 3(3)	1(2)	2(3)	2(3) 2(4)	1(3)	1(4)	
	3(5) 5(6)	1(4) 1(5)	2(3)	1(4)	6(5) 2(6)	1(4)	1(5)	
	4(7) 3(8)	2(6) 1(7)	3(7)	2(6)	4(7) 1(8)	1(8)	1(7)	
	9(9)	1(8) 2(9)	4(9)	3(8)	1(9)		2(8)	
소계(편)	45	12	12	10	26	3	5	113
비율(%)	39.82	10.62	10.62	8.85	23.01	2.65	4.42	100

표16. JCEIT와 교육의 구성요소

	교육목적 연구방법론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평가	의례	합계
논문수	6(1) 5(2)	2(1) 3(2)	1(1) 1(2)	1(1)	2(2) 2(3)	1(3)		
(vol.)	4(3) 5(4)	2(3) 2(4)	1(4) 1(5)	1(3)	1(4) 2(5)		1(6)	

	교육목적 연구방법론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평가	의례	합계
	6(5)	6(6)	5(5)	4(6)	3(6)	1(4)	3(6)		
소계(편)	32		18	7	3	10	1	1	72
비율(%)	44.44		25.00	9.72	4.17	13.89	1.39	1.39	100

표17. 《종교교육학연구》와 교육의 구성요소

	교육목적 연구방법론		교사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평가	의례	합계
논문수 (권)	14(10)	4(11)	1(12)	1(11)					
	13(12)	5(13)	1(14)	1(13)					
	7(14)	13(15)	1(17)	1(14)	7(13)	1(17)	0	0	
	12(16)	8(17)	1(18)	2(15)	2(17)				
소계 (편)	8(18)	5(19)	2(19)	3(19)					
	88		6	8	9	1	0	0	112
비율 (%)	78.57		5.36	7.14	8.04	0.89	0	0	100

9. 연구방법

종교교육학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왜냐하면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상 종합학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신학이나 불교학 등 특정 종교의 연구와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이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학연구방법론에 따라, 혹은 종교학연구방법론의 하나로써 종교교육학을 연구하여 왔던 것이다. 예컨대 인문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인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종교교육학이 종교학이나 특정 종교의 신학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교육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면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로 종교교육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회과학방법론, 곧 계량적인 통계방법이나 질적연구 방법에 따라 종교교육학을 연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교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헌연구방법과 함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균형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교육정보》, JCEIT,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는 모두 한결같이 연구방법에 있어서 90% 내외의 매우 높은 수준에서 문

현연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표18) 이것은 한국종교교육학 연구자들이 대부분 종교학이나 신학을 배경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크게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그 대안으로 질적연구가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종교교육학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가 보다 격려될 필요가 있다.

표18. 연구방법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합계
	논문수	비율	논문수	비율	논문수	비율	
기독교교육정보	102	90.27	8	7.08	3	2.65	113(100)
JCEIT	64	88.89	6	8.33	2	2.78	72(100)
종교교육학연구	103	91.96	4	3.57	5	4.47	112(100)
합계	269	90.57	18	6.06	10	3.37	297(100)

IV. 맺는 말: 비판적 논의

지금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교육학 학술지인 《기독교교육정보》 및 JCEIT,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 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는 다음과 같이 아홉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종교교육학은 개별 연구자에 의한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향후 협동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종교교육학은 하나의 '실천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론과 실천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의 상황 속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론과 실천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한국의 종교교육학 연구자들은 비교적 높은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다. 즉 교회일치운동과 종교간의 대화에 비교적 적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의 경우는 기독교 내의 일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거나 가톨릭교회나 이웃종교에 대해서는 아직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종교교육학 연구는 남성과 여성 연구자들 사이에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수준보다는 높을지언정 아직 미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좀 더 개선이 요망된다. 다섯째, 한국종교교육학의 국제화수준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나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를 통한 국제화가 고무적이거나, 한국 종교

교육학의 세계화를 위해 학회 차원의 분발이 더욱 요청된다. 여섯째, 교육현장과 관련된 한국종교교육학 연구는 기독교의 경우 주로 교회(예배당)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는 학교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사회의 도래 이후, 기독교의 경우는 디지털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현장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일곱째, 후기현대적 주제에 대한 한국종교교육학계의 연구는 매우 빈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종교교육학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연구가 더욱 많이 요청된다. 여덟째, 한국의 종교교육학 연구자들은 교육의 구성요소 중 주로 교육목적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교육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 그리고 종교적 의례(영성, 수련 등) 등의 연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종교교육학은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주로 인문학적인 연구방법, 곧 문헌연구방법에 크게 의존해 있는 특성이 있다. 앞으로 한국의 종교교육학이 종합학문적 특성을 지닌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특히 질적연구방법에 의한 다양한 연구가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는 비록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종교교육학 연구의 국제화와 후기현대적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연구자들이 보다 깊이 관심을 갖고 매진해야 할 분야로 사료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테러와 전쟁, 그리고 종교다원적 상황에서 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역할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연구 및 공교육과 종교교육 사이의 창조적인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성용 · 민태선 · 허철호 · 안은영, 〈과학재단 연구 인력 DB 분석을 통한 지구과학과 타 이학계 분야간의 최근 5년간(FY1999-2003) 연구 실적 비교 분석〉, 《한국

- 지구과학회지》 26:3(2005), 232-239.
- 김호기·엄경순·최혜실, 《지식의 최전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새롭고 더 창조적인 발상들》, 서울: 한길사, 2002.
- 배순자, 〈국내 학술연구자들의 국내학술지 의존도에 대한 계열간 비교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1998), 127-142.
-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Barnes, L. Philip, Comparative Analysis and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A Response to Professors English, D'Souza, and Dr. Chartrand, *Religious Education* 100:2 (2005), 211-222.
- Blunt, A. & Lee, J., The Contribution of Graduate Student Research to Adult Education/Adult Education Quarterly, 1969-1988, *Adult Education Quarterly* 44:3(1994), 125-144.
- Buboltz, W. C. & Savickas, M. L., A 20-Year Retrospective of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1994), 367-381.
- Burgess, Harold William,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6.
- English, Jeona M., D'Souza, Mario O., & Chartrand, Leon, A 10 Year Retrospective of the BJRE: An Analysis of Contents and Contributors,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4(2003), 308-319.
- , Analysis of Contents, Contribu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Mapping Publication Routes in the Journal, *Religious Education* 100:1 (2005), 6-19.
-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Patterns in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100: 2(2005), 193-210.
- Hayes, E. R., The Impact of Feminism on Adult Education Publications: An Analysis of British and American Jour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1:2(1992), 125-138.
- , & Smith, L., Women in Adult Education: An Analysis of Perspective in Major Journals,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44:4(1994), 201-221.
- Thompson, M. & Schield, F. M., Neither polemical nor visionary: Language, professionaliz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journals of adult education, 1929-1960, *Adult Education Quarterly* 46:3 (1996), 123-141.
- Fowler, James W.,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 Hodgson, Peter C., *Winds of the Spirit* (1994), 《기독교구성신학》, 손원영외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0.
- Osmer, Richard R. & Schweitzer, Friedrich, *Religious Education betwee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New Perspectives o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원고접수: 2005년 11월 5일 1차심사: 12월 2일 게재승인일: 12월 12일

제1연구자 소개: 손원영

-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 소속: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② 관심영역: 영성과 교육,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기독교문화교육기독교교육의 영성적 접근
- ③ 주요논저: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수업모델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의 영성적 접근》, 《주일학교문화의 비판적 성찰》, 등
- ④ E-mail: sohnwo@hotmail.com

제2연구자 소개: 김지혜

-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 소속: 서울여자대학교 바롬교육부 강사
 - ② 관심영역: 여성교육, 기독교대학교육
 - ③ E-mail: sphiakim95@hanmail.net
-

An Analytic Study of Korean Religious Education Research

-Focused on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Sohn, Won-Young

(Associate Professor, Seoul Christian University)

Kim, Ji-Hye

(Lecturer,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religious education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major two Korean academic societies, i.e.,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KSCEIT),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KASRE). Now, KSCEIT publishes two different journals, which are called b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CEIT)* an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JCEIT)*. The former is Korean language-based journal, and the latter is based on English language for globalization of Korean religiou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KASRE also publishes one journal named b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KJRE)*. Accordingly, the researcher tried to analyses these three journals in terms of nine decisive factors, that is, collaborative focus,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ligious tolerance, gender equality, globalization, educational context, post-modern issues, research field in terms of educational elements, and research methods. In conclusi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religious education research are appeared like followings: 1) heavily dependence on individual research rather than collaborative study, 2) discrepanc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3) highly concern for religious tolerance, 4) balanced writers between two

genders, 5) a little lower level of globalization, 6) focusing on church context i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but public school-oriented in Buddhist and other Korean traditional religious educations, 7) small concerns for post-modern issues except inter-faith/religious dialogue, 8) high concentration on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research field in comparison with curriculum and evaluation, 9) dependence on literature study rather than social science method lik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Key words: KSCEIT, KASRE, CEIT, JCEIT, KJRE, journals, analysis